코로나 직격탄 맞은 제주관광 활기 찾나

봄 관광시즌 맞아 일 평균 3만명 제주발길 이어져
도, 기념품 공모전·이벤트 등 관광 홍보활동 추진

최근 봄을 맞아 연일 3만명대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코로나로 위축된 제주관광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지역에는 하루 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별로 보면 1일 3만5360명, 2일 3만4275명, 3일 3만1898명, 4일 3만3643명, 5일 3만4347명 등 총 16만9524명이 입도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4월 1~5일 같은 기간 제주에 입도한 내국인 18만여명에 근접한 수치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요는 어느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제주도관광협회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의 문화, 먹거리, 관광명소 등을 반영한 대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대상은 민·공예품, 공산품 및 가공식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제주관광기념품으로, 제주도관광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도내 홍보관 전시와 온라인 마켓 탐나오 입점 및 판매지원, 박람회 참가 홍보, 지식재산권 국내출원 비용 등 지원과 상품화 기법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영상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SK텔레콤과 함께 이용자가 직접 찍은 제주 영상을 공유하는 이벤트인 '제주 러뷰(Jeju Loview) 챌린지'를 오는 26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이벤트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여행했던 제주 풍경 영상을 공유하고, 이 영상을 통해 제주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이벤트에선 본인이 직접 촬영한 제주 영상(1분 이내)을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를 붙여 업로드하고, 제주 러뷰 챌린지 사이트(www.jejuloview.com)에 게시물 URL 등을 작성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해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청명한 날씨를 보인 6일 제주시 도두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 봄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올 3월 제주 최고로 따뜻했다

평균 기온 12.9℃ 기록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아
황사도 역대 두번째 잦아

올해 제주의 3월은 유독 따뜻하고, 희뿌연 달이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1년 제주도 3월 기상특성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먼저 평균기온은 12.9℃로 기상관측 시작된 196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어 2002년 12.2℃, 2020년 11.9℃, 2018년 11.6℃, 2014년 11.3℃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해 봄꽃도 제주시 기준으로 매화 17일, 개나리 19일, 진달래 35일, 벚나무는 8일 평년보다 일찍 개화했다.

황사도 심했다.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해 지난달 16~18일, 29~31일 등 총 6일간 황사가 관측된 것이다. 이는 역대 가장 심했던 2001년(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황사가 많이 관측된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트기류 등이 고위도 지역에 형성돼 북극 찬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차단했다"며 "반대로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 따뜻하고 습한 남풍기류는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8·9급 공무원 경쟁률 19대1

제주도가 실시하는 제3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9대1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5명을 선발하는 8·9급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 335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9대1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세무 9급으로 1명 선발에 79명이 지원해 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9명을 뽑는 일반 행정 9급 공채에는 가장 많은 1659명이 몰려 3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15명 선발에 99명이 응시해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2331명으로 전체 6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835명(24.9%), 40대 180명(5.4%), 50대 29명(5.4%) 순이다.

최고령 지원자 나이는 54세, 최연소 지원자 나이는 18세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등반객은 줄었는데 산악사고는 급증

한라산 등반객 1년새 18만명 감소
사고는 2019년 141건→ 작년 174건
소방본부,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지난해 한라산 탐방객이 18만명 이상 줄었지만 산악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객은 66만2568명으로, 2019년 84만8279명보다 18만5711명(21.9%) 줄었다. 반면 산악사고는 174건으로 2019년(141건)에 비해 33건(23.4%) 늘었다.

제주소방은 산악사고가 늘어난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안전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예방·안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면서, 산행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산악사고 174건 중 139건(79.9%)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일어난 '일반조난'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5월과 10월에만 운영하던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올해에는 두 배 늘린 4~5월, 9~10월 운영하기로 했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관음사와 영실, 어리목, 성판악에 소방공무원 2명, 의용소방대원 2명이 각각 상주해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건강상태 체크, 간이응급의료소 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사고빈발 및 위험예상지역에 설치된 간이구조구급함과 위치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등산로와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에서 사고예방 관련 홍보도 전개한다.

아울러 이번달과 오는 9월에는 ▷드론활용 인명 수색훈련 ▷인명구조견 활용 훈련 ▷항공기 활용 산악구조훈련 ▷산악사고 다발지역 지리숙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산악사고 174건 가운데 4월과 10~11월에만 40%(68건)가 발생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안전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어민들 원성 폭발 '야간 해루질' 제한

도, 맨손어업 제한·조건 고시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뜻하는 '해루질'이 제한된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줄어든다는 우려에서다.

제주자치도는 7일부터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마을어장내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된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을어장 안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는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 갈고리 등 어구는 물론 잠수용 장비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해루질로 얻은 수산자원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해루질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대평리 주민들은 "홍해삼과 문어, 갑오징어, 물고기 등 보이는 족족 거둬가는 해루질로 수산자원은 고갈되고 마을어장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밤마다 해안을 순찰하고 있지만, 정작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행위라며 매일 우리마을 어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루질로 얻은 어획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제주도 특사경을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급식실에 미끄럼방지 시설 도교육청 "23개 학교 선정"

제주 23개교(초 17, 중 4, 고 2) 학교 급식실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됐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급식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교를 선정해 5일 트렌치 덮개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장에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 바닥은 많은 물을 사용하면서 수막현상이 발생하는데, 트렌치 덮개는 그것에 취약한 편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급식실 종사자들의 넘어짐이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트렌치 덮개에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23개교 선정은 도교육청이 산업재해 발생학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한 현장 반응 등을 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